

능력있고 위생적인 종돈을 공급하는 제 2 종돈능력검정소



- 추 용 진 -

◀ 앞줄 좌측부터
손창준대리, 오하식차장,
김형균소장, 김미라씨

뒷줄 좌측부터 조석근주임,
강훈기기사, 홍성문기사,
김성만기사

본회 산하 제1, 제2종돈능력검정소는 우리나라 전체 돼지의 개량 및 생산성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 경남 하동에 각각 자리잡고 있다.

1984년에 제1종돈능력검정소가 검정을 시작한 이래 우수한 종돈의 보급으로 돼지의 능력 향상과 개량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남부지방 양돈인들이 거리가 멀어 검정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꼈으며, 남부지방의 종돈 개량을 촉진시키고자 1990년 경남 하동에 제 2 종돈능력검정소(소장 : 김형균)를 개소하였다.

경남 하동 진교 양포리에 소재한 제2종돈능력검정소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교통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제2검

정소는 개소 이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지역의 종돈장으로부터 검정후보돈을 의뢰받아 약 6,000여두의 검정돈을 양돈농가에 분양하였다.

종돈개량의 산실 제2검정소

현재 제2종돈능력검정소는 김형균소장을 비롯, 8명의 직원이 매월 200여두의 검정소 검정을 하고 있으며, 4개 농장에서 매월 100여두의 농장 검정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제2검정소는 검정돈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1년에 2회 이상 검정후보돈을 출품하는 종돈장의 출하육돈 가검물검사를 실시하는 위생지도를 펼치고 있다.

현지취재

매달 개최되는 종돈능력검정위원회에서는 강대진 경상대 교수를 비롯한 7명의 검정의원들이 순종돈의 경제형질에 대한 생산능력을 조사하고 외모심사에 의거하여 유전적 자질이 우수하고 위생적인 후보종돈을 선발하고 있다. 여기서 선발된 종돈들은 매월 5일 실시되는 경매를 통하여 일반 농장에 분양되어 활용되고 있다.

제2종돈능력검정소는 90년 개소 이후 현재(96.10)까지 11,386두의 검정돈을 입식하여 75차의 경매를 거쳐 6,586두의 검정돈을 분양하였다. 또한 6년간 검정돈을 출품했던 농장 및 기관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116개 종돈장중 총 71개 종돈장이다. 금년도에는 22개 종돈장에서 종돈개량을 위해 검정돈을 출품하고 약 30~40개의 농장에서 경매를 통해 구입했다.

종돈의 능력을 판단하는 선발지수는 개량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본 근거가 되는데 제2검정소에서는 92년도에 선발지수가 304점인 수퍼돈이 탄생하여 1,500만원에 경매된 적이 있다. 또 올 7월에는 선발지수 270점 이상인 수퍼돈이 3마리나 탄생하여 모두 400만원 이상의 고가에 낙찰되었다.



▲ 검정위원들이 유전적 자질이 우수하고 위생적인 후보종돈을 선발하고 있다.

90년부터 95년까지 변화된 검정돈의 평균 검정성적을 보면 <표 1>과 같다.

숫돼지의 경우 일당증체량은 90년 869g에서 95년 888g으로 등지방두께는 90년 1.53cm에서 95년 1.39cm로 0.14cm 개량되었다. 사료요구율은 90년 2.47kg에서 95년 2.33kg으로 매년 개선되었으며, 개량도는 0.14kg이다. 90kg 도달일령은 90년 145일에서 95년 143일로 2일 단축되었다.

<표 1> 연도별 평균 검정성적(제2종돈능력검정소)

구분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일당증체량	(♂)	869	905	923	913	870	888
-g-	(♀)	805	836	867	857	844	872
등지방두께	(♂)	1.53	1.46	1.53	1.53	1.44	1.39
-cm-	(♀)	1.55	1.47	1.50	1.55	1.48	1.45
사료요구율	(♂)	2.47	2.49	2.39	2.37	2.36	2.33
	(♀)	2.63	2.67	2.45	2.49	2.46	2.39
90kg도달일령	(♂)	145	142	139	139	145	143
-일-	(♀)	150	146	141	143	148	143

한편 제2검정소의 오하식 차장은 정부의 가축전산망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캐나다에 연수교육을 다녀왔다. 정부에서 앞으로 축산기술연구소의

대형컴퓨터와 각 종축기관별로 설치되는 단말기를 통한 국가적 전산망을 구축하게 되면, 제1,2종돈능력검정소의 모든 자료는 축산기술연구소의 대형 컴퓨터로 보내져 검정능력 분석 등의 종돈개량 자료로 쓰이게 된다.

질병전파 차단으로 종돈의 질적향상 도모

김형균 소장은 “검정소에서 검정하는 모든 돼지의 위생검사를

현지취재

실시하여 종돈 능력 개량과 더불어 질병전파 차단과 위생적인 종돈이 유통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제2검정소는 95년부터 개량 위생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입식 전 두수 및 경매 전 두수에 대한 오제스키병 진단을 실시하고 입식돈의 AR비말 검사, PSS검사, 혈청검사, 종돈장 출하육돈의 가검물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개량위생자조금은 경매되는 돼지 1두당 25,000원의 자조금을 조성하며, 경매되는 돼지 1두당 출품농장에서 15,000원, 구입농장에서 10,000원을 내고 있다.

위생검사는 입식된 모든 돼지가 예비사에서 7~10일간 머무는 동안에 실시되며, 위생검사중 혈청검사로 백신역가를 조사하여 돈콜레라, 돈단독, 호흡기 질병 등의 백신상태를 농가에 통보해주고 있다. 제2검정소는 출품농장 지도차원에서 백신역가를 가지고 백신결과를 분석, 통보함으로써 실제로 농장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나 백신보관, 접종방법 등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가 있었다.

한편 제2검정소에서는 종돈장위생관리요령에 의해 실시되는 종돈장 출하육돈 가검물 검사로 출품종돈장의 위생지도를 하고 있다. 종돈장 출하육돈 가검물 검사는 도축장에서 비갑개골 절단으로 AR검사, 간, 폐에서의 시료채취로 질병검사를 하여 종돈장의 질병상태 파악과 약제의 감



▲ 입식돈의 위생검사를 위해 채혈을 하고 있는 모습

수성 검사로 종돈장의 질병을 차단하고 있다. 종돈장 출하육돈 가검물검사에서 AR의 경우 95년도에 31.5% 발생(286두 검사)에서 올해 15.6% 발생(1,348두 검사)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냈다.

김형균 소장은 “검정소 검정과 농가검정으로써 현재의 종돈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량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검정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형균 소장은 “검정소에 돼지를 출품하는 농장은 돼지 개량성적의 지표가 되고 구입농장은 자기 농장에 필요한 검정성적이 있는 돼지를 구입하여 농장 성적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종돈장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여 능력있고 위생적인 종돈 유통을 담당할 제2종돈능력검정소는 국제 경쟁시대에 돌입한 양돈산업의 단단한 주춧돌 역할을 다해낼 것이다.